하나님 신앙과 하나님 대체

(눅7:29-35)

29.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31.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32.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33.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34.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35.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 대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확연히 닿게 하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제 아날로그 TV가 없어집니다, 디지털 방식의 TV가 대체했습니다.
필름을 넣고 찍는 아날로그 카메라가 없어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들어섰습니다.
전세계를 뒤덮고 있던 전자회사 소니를 우리나라의 삼성과 LG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건과 사물에 관계될 때는 많은 경우에 진보의 의미를 담

고 있는 긍정적인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가 인격적인 관계에 적용될 때는 아주 커다란 파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대체한다, 남편을 대체한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자식이 못났습니다, 옆집 자식이 너무 잘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꿈에도 그 잘난 옆집 자식과 못난 내 자식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아이의 인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인격체가 발전하기를 원하지, 대체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일이 뭐냐 하면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앙인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선민들이 그 하나님을 무엇인가로 대체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구분을 우리가 죽어도 잊지 말아야 돼요.
뼈 속에 새기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평생 믿지 않는 것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냐에 대한 구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하나님 대체를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분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지금, 지금이라는 단어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아버지가 보고 싶으십니까? 그립습니까? 지금 하나님아버지가 계신 천국이 그립고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에서부터 소망의 내용이 결정되고, 사랑의 사건이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전혀 하나님이 그립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고, 하나님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 그리워지지 않고 있다면, 그런데도 내가 신앙인이라

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TV로 대체되어 버린 것처럼 무엇인가로 하나님이 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들에게 아버지로 계시되고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그립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은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체했을까요?
그 옛날 선민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대체했는가 하면 율법과 계명과 규정, 그리고 그 율법 계명 규정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들은 결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으면서 율법과 규정과 계명,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대신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언제나 지금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기본정신도 언제나 문자화 된 율법을 통해서 그 문자를 말씀해주신 하나님의 인격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local church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직분에 합당한 봉사와 섬김을 하고 교회의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여하는 교인생활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렸습니다.
교회 일로 바쁘고 교회행사로 바쁘고, 교회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교인과 교인이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젊은 남녀가 뜨겁게 열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재벌가의 딸입니다, 남자는 평범한 가정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재벌가에서 자기 딸을 가두어버렸고, 남자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딸이 우울해합니다, 그러니까 명품 백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고급 차를 사주고, 크루즈 여행을 가게 해주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 싶은 그 남자를 이 젊은 아가씨의 마음에서 대체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아가씨의 마음에서 지금 그 애인을 대체해줄 수 있는 대체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대체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자식이 비록 못났지마는 다른 훌륭한 자식과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하나님을 애인을 보고 싶어 하는 이 아가씨의 마음처럼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대체되었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를 외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금욕생활을 합니다.
금욕주의가 근본적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지만, 세례요한이 temporary 일시적으로 그의 기능이 뭐였냐 하면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해먹고 살고 있는 이 현실생활의 삶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잘못 돼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욕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나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비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늘나라의 뜻이 지금 현재 내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고, 하늘의 기운 하나님아버지의 뜻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현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도 안 받아들인 자들이 예수님도 안 받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따라서 곡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어떤 아이가 많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우리가 함께 결혼잔칫집 놀이를 하자!' 그러는데 아무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생각에 '아, 지금은 결혼잔칫집 놀이를 하고 싶지 않은가 보구나!' 그래서 다시 제안을 합니다, '곡하면서 초상집 놀이를 하자!'

그런데 그것도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어떤 놀이를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놀이를 제안하고 있는 이 아이를 그 장터에 모여 있던 아이들이 아예 그 자체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것이 세례요한이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지혜'라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지혜가 없다, 지혜와 무관하다'

지혜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아주 민첩하고 정확하게 그 사물을 잘 처리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의 지혜로, 지혜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듣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는 마음, 선배의 말씀을 듣는 마음, 전문가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업을 벌여놓고, 내가 일을 벌여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에 해당하는 듣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자세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이 좋았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이 없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놀이를 제안하는 아이를 놀이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놀이를 제안하는 아이 자체를 싫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으려는 마음, 곧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혜의 총화에요.
하나님아버지께 들은 말씀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문자로 쓰여진 율법과 전통과 계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싶어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총화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있고, 애당초 하나님을 좋아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너희들은 문자화 된 율법을 너희가 손에 쥐고 너희 뜻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자의로 이것을 이루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신앙을 대체해버렸다'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전혀 지금 현재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고 좋아하지 않으면서 열애중인 아가씨가 자기 애인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으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생래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식을 사랑할 줄 압니다, 나이가 돼서 사춘기가 지나 청년이 되면 애인을 좋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면 돈 좋아할 줄 압니다.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다 본능적으로 좋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만은 본능적으로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죄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까지 도달하는 길을 많이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고난과 희생과 같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진정으로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게 고난 받고 채찍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린 너무 앞부분에 치중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매달려 죽으면 돼요.
내가 채찍 맞은 길을 다시 걸을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가시에 찔린 그 길을 다시 걸을 필요 없어요.
십자가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십자가의 길이 시작해서 죽어서 장사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 죽어서 장사되는 겁니다, 하관예배가 치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언제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부활과 승천까지 따라 올라가면서 '주님이 우편에서 아버지를 만나듯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신앙고백이요,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바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본래적으로 뜨겁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죄로 물들고 죄로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봐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지금 사업문제가 급하지만, 지금 독도 문제가 급하지만, 지금 올림픽 메달을 따야 하지만, 지금 당장 건강을 돌봐야 되고 자식을 돌봐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주님 우편까지 따라 올라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나도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와 주세요!' 이 간구 이 소원 이 소망이 하나님신앙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께 듣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만족해하는 것은 이 아가씨가 부모의 반대를 극복해내고 드디어 허락을 받고 애인을 만났을 때의 이 감격, 그리고 이

감격이 유지될 수만 있다면 이 아가씨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자 만나는 것은 그렇게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 순간에는 그게 끝인 줄 알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행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혜의 총화이십니다,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틀린 줄 알아요.
그러나 세리가 받아들입니다, 창녀가 받아들입니다,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용도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옳다함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 제사장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지혜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체하고 계십니까?
교회생활이 바쁘십니까?
누군가는 교회봉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먼저이면 안돼요.
하나님이 그립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고 싶지도 않은데,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믿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고 교회를 위해 봉사 충성해야 교회가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가 없어져도 좋으니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 자신을 먼저 찾으세요!
이 권고가 없는 교회는 엄밀히 말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가, 하나님을 대체할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가를 살펴보고, 그러고 싶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주님 우편에 계신 그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세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전혀 그리워하지도 보고 싶어 하지도, 또 아버지 계신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 그릇된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 중단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 안에까지 가서 주님이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